

기술문명의 미래는 유토피아인가

‘닫힌’ 사고보다 ‘열린’ 미래의 가능성 검토 필요

김환석

국민대 교수·사회학

20세기가 끝나가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오늘날 인류는 정보화와 지구화 등 세계질서의 저변에 휩쓸려 있고, 여기에 산업과 환경위기 그리고 남북간 격차 등이 더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어 세계에는 자못 세기말적 분위기가 감도는 한편 ‘새로운 문명’의 압박을 예언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고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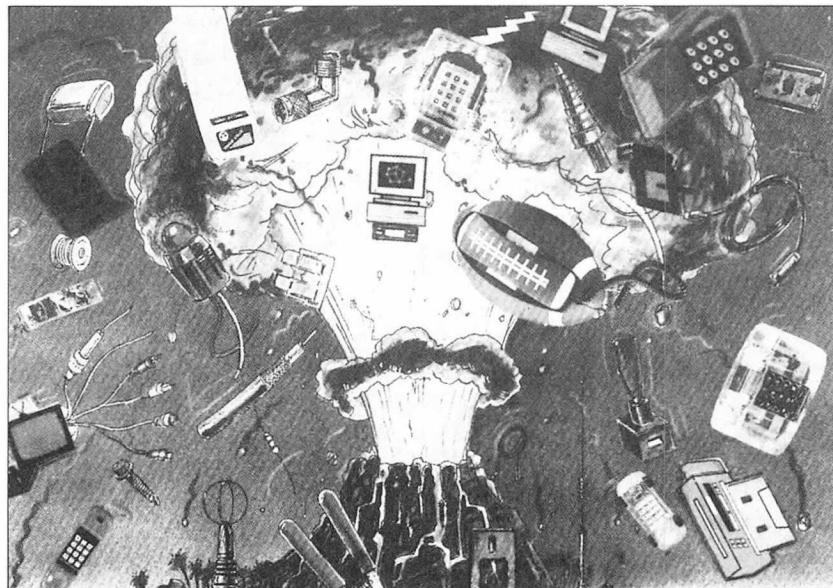
사회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변화 한 가운데에 컴퓨터를 위시한 정보통신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금세기가 기술이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대해 지배력을 넓혀온 기술문명의 시대였다면, 21세기에는 첨단기술이 인간활동의 전 영역에서 개발되고 이용되며 사회의 지배능리가 되는 ‘초기술문명’의 시대가 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연 기술문명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초기술문명의 시대의 미래

한편에서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 시대를 지나 인류가 ‘정보사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니엘 벨, 앨빈 토플러 등 미래학자들이 컴퓨터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화의 길에 대해 낙관적인 예언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세계적 통신망과 정보고속도로, 사이버공간과 가상현실, 생산성 향상과 무한한 물질적 풍요, 무인 자동화공장과 전자사무실로 표상되는 기술 유토피아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고 이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열심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이러한 풍요로운 신세계에 낙오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이 요구하는 숙련과 지식, 그에 걸맞은 규범과 행동양식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탈중심화와 쌍방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에는 사고방식의 개성화,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진척되므로 권력의 분산을 통해 참여민주주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네그로폰테).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의 대규모 기술 발전이 인간 소외와 환경 파괴의 주범이며, 핵발전소와 첨단 대량살상 무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산력이 파괴력으로,



기술문명의 미래를 위한 제3의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기술문명의 미래를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의 미리 ‘닫혀진’ 것으로 보지 않고, 열려진 미래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제3의 입장은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미 선진국에서 무시못할 비중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발적 활동들은 미래 사회의 주도적 조직활동으로 주목된다.

계획능력이 파괴를 위한 잠재력으로”(하버마스) 둔갑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기술문명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존재한다.

자크 엘릴에 의하면 기술현상은 합리성과 인공성의 두 본질적 특성이 있으며, 기술축적에 의해 창출되는 인공세계는 자연세계를 파괴·배제·종식시키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세계는 공존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문명은 그 체계 안에 인간을 점점 예속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과 생태계 파괴를 불가피하게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한 컴퓨터과학자이자 인공지능분야의 선구자인 요제프 바이첸바움은 이러한 전망을 오늘날 컴퓨터기술의 지배와 이에 대한 사람들의 맹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컴퓨터로 인간의 노동과 지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인간이 해결해야 할 일을 기계에 위탁함으로써 인간 이성의 무력화와 동시에 ‘컴퓨터 권력’이라는 새로운 지배권력을 낳는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이러한 사회는 결국 핵재앙과 비견할 만한 정보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는 엄중히 경고한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근대의 도구적 이성(인간/자연을 대립적으로 보는)에 기반한 서양의 기술문명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생명가치 중심의 생태주의적(혹은 동양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소박한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인류문명의 전환을 이룩하자고 주장한다(박이문).

열린 미래의 시나리오에 주목

만나지 않는 평생선을 달리는 것같은 위두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맞을까? 그 답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된 경험적 현실 속에서 궁극적으로 입증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견해 모두 다소 지나치게 기술을 고정된 발전 궤적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대체로 일방적이고 일면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은 할 수 있다.

기술이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는 이러한 낙관론과 비판론은 그 상반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흔히 똑같

이 ‘기술결정론’의 오류를 범하곤 한다. 기술은 사회로부터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각 사회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창출·선택·이용되며 또 그 과정에서 해당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단히 개선 혹은 도태되는 것이다.

즉 기술은 진화의 산물이다(바살라). 따라서 기술 자체가 어떤 사회적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기보다는, 사회시스템의 성격과 그 속에서의 인간들의 선택행위(그것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에 따라 기술의 발전경로와 사회적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기술은 다양한 사회적 가능성들에 열려 있으며 기껏해야 그 가능성들의 한계만을 규정할 뿐이다.

예컨대 컴퓨터는 인간이 노동의 고역으로부터 해방된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지만, 국가와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노동강도의 강화와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 결과는 주요 사회 세력들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가변적이다.

이런 면에서 기술문명의 미래를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의 미리 ‘닫혀진’ 것으로 보지 않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하면서 열려진 미래의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검토하는 제3의 입장은 훨씬 풍부한 시사점들을 던져준다. 예컨대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앙드레 고르의 《노동계급이여 안녕》, 제임스 로버트슨의 《미래의 노동》(미번역)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물론 이 저서들도 문명의 전환을 대담하게 예고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인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술결정론인 미래 전망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기술혁명에 대처하여 그 사회적 결과를 희망적인 미래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실천전략과 사회시스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오랜 인류의 이상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고 있다.

미래사회 주도할 ‘제3부문’의 조직

이들의 공통적인 출발점은 지난 20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산업문명이 이제 기술발전이 초래한 실업과 환경위기 등 스스로는

다시 우울하고 슬픈 결론

《프로이트를 만든 여자들》을 읽고

김정란 · 시인 · 상지대 불문과 교수

풀 수 없는 벽에 부딪쳐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세계의 실업자 및 잠재적 실업자는 8억명 이상이며 OECD국 평균 실업률은 8%로서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은 정보기술혁명과 이에 수반된 경영혁신(리엔지니어링 등)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호황이 와도 생산량만 늘 뿐 방대한 실업인구를 흡수할 고용기회 창출은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진단한다.

따라서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어가는데, 한편에는 첨단기술로 세계경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보엘리트 집단이, 다른 한편에는 점점 자동화되어가는 세계에서 완전히 불필요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거대한 영구 실업자 집단이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시장시대’(리프킨) 혹은 ‘탈산업시대’(고르, 로보트슨)에 대처하는 능동적 실천전략으로서의 우선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 창출, 더 나아가서는 아예 산업 노동 윤리로부터의 탈피를 통한 새로운 자발적 활동들의 조직화이다.

정부도 기업도 아닌 ‘제3부문’이라 불리는 이 자원적 조직 부문은 소외된 임노동이 아니라 자기 실현과 지역공동체에의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노동 해방’의 단초라 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에서는 무시 못할 비중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3부문이 소수 엘리트층을 제외한 인구 대다수를 흡수하여 미래 사회의 주도 부문이 된다면 인류는 이미 새로운 문명으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동화로 인한 실업이 없으므로 위의 주장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칫 자만할 수 있으나 이는 단견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정부와 기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사회문제들(환경, 교육, 가정, 노인, 장애인 등)이 산적해 있다. 그리고 사장된 여성인력, 조기 퇴직인력 등 방대한 잠재적 실업자군의 능력이 낭비되고 있다. 만일 이 인력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극도로 취약한 자원적 조직부문의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시민사회와 참여민주주의가 성숙되어 우리도 성큼 새로운 문명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될 것이다. ❖

잉에 슈테판은 《남과 여에 관한 우울하고 슬픈 결론》에 이어서, 《프로이트를 만든 여자들》에서 다시 한번 더 우월한 남성의 배일에 가려진 여성들의 좌절을 탐구한다. 《남과 여...》에서 천재들의 곁에 있었던 여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한명의 남자가 그에 못지 않게 위대할 수도 있었을 다른 한 명의 영혼을 희생시켰는가를 살펴보았던 그녀는, 이번엔 단 한명의, ‘결정적인’ 천재의 주변을 뒤진다. 20세기에 전개된 모든 정신적 변화의 근본을 제시한 남성, 프로이트. 훗날 단 한명의 천재로 기억된 이 남성은, 많은 여성들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다.

잉에 슈테판의 책은 프로이트라는 위대함의 신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몽땅 소진시켜 버린, 두 명의 피정복자, 그의 아내와 딸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프로이트 주변에 있었던 여성들의 삶이 배치되어 있다.

책을 읽어보면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들이 한결같이 쟁쟁한 집안 출신에다가, 빼어난 지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러나 불행했던 여성들이 정신분석학에 입문하는 과정은, 남성들의 입문과정과 전혀 다르다. 그것에서는 거의 개종의 흥분과도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왜 이 여성들은 그렇게 정신분석학에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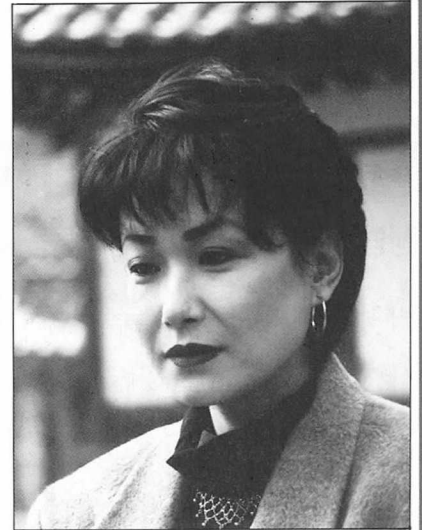
두하게 되었던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녀들은 정신분석학에서 자신의 여성적 존재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던 것이다. 억압되어 있던 자신의 자질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나 위험은 미묘하게 도사리고 있었다. 프로이트 발견의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한 인간의 인간됨의 의미가 확고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안에서 찾아져야 한다. 의식적 자아를 무한히 초월하는 무의식적 자아. 따라서 정신분석학에서는 타자(他者)의 문제가 존재의 한복판에 제기된다. 20세기 초반까지의 문명이 남성적 사유의 전유물이었으므로, 당연히 그 타자성의 발견은 ‘여성’의 존재 의미와 맞물린다. 그 때문에 정신분석학의 형성과정에 여성들의 존재가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은 여성을 끊임없이 필요로 했으면서도, 합당한 영광을 여성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문제는 또다시 ‘정복’의 문제로 변질되어 버린다. 여자는 여자의 여자가 아니라, 또다시 남자의 여자로 남겨진다. 지나치게 가까이 갔던 여자들은 한결같이 부서져 버린다.

남성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들을 위한 정신분석학을 했던 여자들. 그녀들의 학문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점은 단번에 드러난다. 그녀들은 학문적 독자성을 확립하는 대신, 프로이트 학문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몰두한다. 자신을 확립한 여자들은,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뛰쳐나왔던 여자들이다. 잉에 슈테판의 결론은 다시 ‘우울하고 슬프다’.

자아의 불확실성, 의식의 상대적 무능력에 대한 겸손한 인지로 귀결되어야 할



김정란 교수.

정신분석학의 학문적 교훈은, 그것을 주도해 왔던 남성들에 의하여 영토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 저자가 내린 결론이다. 그 진정한 의미는 남성 특유의 정치적 야심에 의하여, 땅따먹기 욕망 뒷편으로 숨어버린다.

문제는 여전히, 남성들에 의하여, 남성들을 위하여, 남성의 시각으로 제시된다. 남성들이 진정으로 자아의 해체에 동의하고, 진정으로 남성적 질서에 근거해 형성된 자아 동일성을 반성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타자를 환대하는 방식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하는 한, 여성의 비극은 계속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사랑’은 끊임없이 여성에게 희생용,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강요하리라는 것이다. 그 비극의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 해도 그녀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겪는 열등감은 극복되지 않는다. 여성의 문제는 여성의 손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점에 관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상 거의 없다. 인류가 구축해 온 모든 정신적 가치들은 지금까지 전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꼬리표가 붙어왔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해체’할 것이 없다. 그녀들은 한번도 자신의 원칙으로 형이상학을 구축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

잉에 슈테판 지음/이영희 옮김
새로운사람들/A5신/360면/8000원

